

■ 서 평

지명 해독의 오류를 극복하는 계기 마련

—오창영,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김 동 윤*

1.

나는 이 저서에 대한 평을 쓰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주도의 오름(기생화산)과 마을의 이름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이 저서는 어학 분야의 접근이고 나는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물론 지명도 문학적 상상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가 서평을 쓰려는 것은 제주도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저서의 가치를 높이 사서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저자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한 소장학자다. 석사논문 「비변사등록의 이두 연구」(1988)와 박사논문 「조선후기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1995)에서 보듯이 저자는 이두를 중심으로 국어사를 전공했다. 아울러 「제주도방언의 감각어에 대한 고찰」(1993), 「제주도방언에 대한 학술조사의 성과와 문제점」(1995) 등 제주도방언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다. 이렇게 저자가 국어사를 전공하고 제주도방언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바로 제주도지명 연구의 적임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저자는 수년 전부터 「제주도지명 연구사」(1995)를 비롯한 여러 편의 논문을 써 왔으며, 그 작업들이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으로 결실을 본 것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2.

608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진 이 저서는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I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방법, 의의 등을 밝히고 있으며, II장 '차차 표기 체계와 운용의 실제'에서는 지명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한자 차용 표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300여 개의 오름 이름을, IV장에서는 행정동과 법정동·리를 중심으로 마을 이름을 각각 고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저서의 본론이라 할 수 있다. 이 III·IV장에서는 현재 민간에서 부르고 있는 이름을 찾아 밝히고, 옛 지도와 문헌들을 참고하여 그 음성형과 의미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V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제주도지명 표기에 나타나는 언어학적 특징을 정리해 놓고 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저서를 집필하기 위해 저자는 「탐라지도」(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등의 옛 지도와 「고려사」(정인지 등, 1454), 「남사록」(김상헌 편저, 1601~02) 등의 옛 문헌 수십 종을 살살이 검토하고, 제주도 곳곳의 오름과 마을의 현장들을 직접 답사해야 했으니, 집필 과정에 기울인 노력들이 대단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저서의 가장 큰 의미는 저자가 차차 표기에 대한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명 해독에 대한 수많은 오류들을 바로잡았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북제주군 애월읍 동구리에 있는 '파군봉(破軍峰; 바굼지오름)'은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격파한 곳이라는 데서 한자화했다는 진성기·김종철·김기빈 등의 견해를 거의 정설로 믿고 있다. 그러나 '破軍'은 한자의 훈(訓)과는 상관없는 '바구니[籠]'의 음가자 표기일 뿐임을 저자는 명확히 밝혀냈다. 전설에 의존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에는 '개구리오름'·'갓골오름/皮文岳'·'개꼬리오름/狗尾岳' 등으로 불리는 오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를 개[狗]와 관련지어 해석하거나(각종 지도, 『한림읍지』, 오성환 등), 신성한 지역을

의미하는 ‘곰’에 대응하는 것이라거나(현평효), 산기슭의 의미라고(김종철) 보아왔다. 그런데 이것은 각종 옛 지도와 주변의 묘 비석에 표기된 ‘皮文岳’의 음성형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민간어원설에만 의존한, 잘못된 해독에서 나온 결과임을 저자가 밝혔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오름이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바, 각 봉우리 동성마루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즉, 거꾸로[倒]) 누워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皮文岳’은 ‘갓그리오름’ 또는 이의 변형인 ‘갯거리오름’의 음성형을 반영한 이름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서귀포시의 남쪽에 있는 ‘문섬’에 관한 엉뚱한 지명 해석을 바로잡았다. 이 섬이 일제시대부터 ‘蚊島’라고 표기되었는데, 이 한자 표기에 견인되어 진성기·한글학회·김봉현·오성찬 등이 모기가 많다는 데서 나온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해석에 대해 저자는 옛 지도의 표기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바탕 그대로 드러난 섬’이라는 뜻이 반영된 지명이라고 바로잡은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지미봉(地尾峰)’의 경우 땅 끝에 있는 오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진성기, 한글학회, 김봉현, 김종철), 저자는 ‘地’를 혼독자가 아닌 음독자로 보고 ‘尾’를 끝의 의미를 지닌 제주도방언 ‘깍’의 혼독자 표기로 보았다. 따라서 ‘지깍메’ 또는 ‘메지깍오름’, ‘지깍오름’이 그 원형일 것으로 추정했다. 종달리(終達里) 지명도 마찬가지다. 맨 끝에 있는 땅이라거나 제주목의 동쪽 끝에 있는 마을이라는 해석이 많으나(박용후, 진성기, 오성찬 등), 저자는 이를 신빙성이 없는 민간어원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기존의 지명 해석에 잘못된 것이 부지기수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오류가 연구물에 그쳤다면 안타까움이 덜 했을 것이지만, 정부 간행물과 지방의 행정 간행물, 지방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물론, 심지어는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향토교육자료 등에까지 왜곡된 내용이 실려 있고, 식자층까지도 왜곡된 내용을 바른 것으로 인식하는 현실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토로하고 있다.

3.

서두에 밝혔듯이 나는 지명 분야에 문외한이다. 그러면서도 이 저서를 읽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다소의 의문과 아쉬움을 느꼈기에 여기에 언급해 본다.

우선,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衣貴里) 마을 이름에 관한 것이다. “(……) ‘옷귀’를 김만일 후손이 임금에게 귀한 옷을 받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는 것은 마을 이름을 지나치게 미화한 것이다. 『남사록』(권3)에 보이는 ‘五耳里/옥귀마을·옷귀마을’은 ‘옷귀마을’의 차자 표기이므로, 민간에서의 ‘옷귀, 옷기’는 옷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461쪽)는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저자와 달리 나는 ‘옷귀’라는 지명이 ‘옷’과 관계가 있으며 김만일 일가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나는 고향이 의귀리이며 또한 김만일 후손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의 견해가 주관적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히 있음을 인정한다).

저자도 밝히고 있듯이 ‘의귀’에 관한 지명 표기는 ‘衣貴’가 대부분이고 일부 자료에 ‘義貴’와 ‘五耳’가 나오므로, 그 음상은 ‘옷귀, 옷기, 옥기’ 정도였을 것이다. 나는 대다수의 자료에 나타나는 ‘衣貴’에서 ‘衣’는 ‘옷’의 훈독자 표기, ‘貴’는 음가자 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럴 때 ‘義貴’의 ‘義’는 ‘衣’의 음만을 빌린 것이며 ‘五耳’의 ‘五’는 음가자 표기, ‘耳’는 훈독자 표기라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의귀리 지명과 관련하여 김인호(『관광제주』 1990년 1월호; 『제주신문』 1998년 3월 1일치)는 金南獻(金萬一의 5대손)이 賜衣를 받은 것이 1726년인데 그 이전에 이미 ‘衣貴’라는 표기가 나오므로, 이는 감목관 경주김씨 집안(김만일 일가)과 무관하며 몽골어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명 생성에 영향을 끼친 옷을 김남현이 받은 賜衣로만 볼 것이 아니라 김만일이 임금으로부터 얻은 벼슬을 일컫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말(馬)을 정부에 헌납한 김만일이 선조의 부름을 받고 한양에 갔을 때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堂上官 이상이 입을青衣를 입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했으며, 왕이 곧 청의를 하사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경주 김씨가의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제주도사연구』제2집(제주도사연구회, 1992), 58쪽 참조). 김만일이 종2품 嘉善大夫 五衛都總府 都總官을 제수받은 것이 선조 33년(1600년)이었으니, 『남사록』(1601~02)의 ‘五耳’, 『탐라순력도』(1702)의 ‘衣貴’, 『탐라지초본』(19세기 중반)의 ‘義貴’ 등에 대해서 시기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다.

책의 편집 면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권말에 제시된 ‘찾아보기’에서 오름 이름과 마을 이름, 일반 지명을 분류해 주었으면 독자들이 이용하기에 좀더 편했을 것이다. 오름 이름은 차례에 그 소재지를 시·읍·면으로만 구분하여 접근하기가 불편하다. 둘째, 오름의 순서는 같은 지역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배열했는지 알 수 없다. 특별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가나다순에 의해 배열하는 것이 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좋을 것이다. 셋째, 연구에 활용된 각종 지도 자료를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오름인 경우에는 사진을 수록했다면 더욱 좋았으리라고 본다. 예컨대 ‘갯거리 오름’의 경우는 그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름이므로, 사진을 함께 실었다면 저자의 주장이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한 가지 바람을 덧붙이자면, 이 저서는 원고 분량도 많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대중화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오름 이름 부분과 마을 이름 부분을 분책하여 증보판을 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4.

저자도 밝히고 있듯이 지명 연구의 목적은 “선조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며 “지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유어 등을 비롯한 언어

의 역사를 밝혀내는 것”(1쪽)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은 제주도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고 제주어의 역사를 밝혀내는 데 기여하게 될 역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비전문가에 의해 왜곡된 제주도의 지명들에 대해 이 저서에서 치밀한 자료 검토와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바로잡은 점은 크게 주목되어야 한다. 학계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 언론기관 등에서도 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안다.